



“마운드 사수 예비역의 힘 지켜봐 달라”

2010 정상을 향해 달린다 4 KIA 복귀한 투수 신 용 운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의 투수 신용운이 2010년 희망을 던진다.

2002년 프로무대에 뛰어난 신용운은 KIA에서 6시즌을 보내며 3.33의 방어율로 33승21패 22세이브를 거뒀다. 선발과 중간 또 마무리를 오가며 굵은일을 도맡아 했던 신용운은 언제든 팀을 지켜 줄 것 같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수호신’ 신용운은 KIA 팬들에게 그만쯤 아픈 이름이기도 하다.

어려운 팀 상황에서 실재없이 공을 던져야 했던 신용운은 여러차례 마운드에 눈물을 흘려 팬들을 울렸다.

2007시즌을 마치고 도망치듯 군으로 떠났던 신용운이 돌아왔다. 신용운은 지난달 경찰청에서 제대한 뒤 복귀를 위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제대 직후 자비로 필리핀 훈련을 다녀왔던 신용운은 지난 5일 윤석민·곽정철·김상훈 등과 광 선발대로 스프링캠프를 떠났다. 새출발을 한 신용운의 심정은 걱정만 기대반이다.

신용운은 “군복무가 끝나면 마음이 훨씬 풀릴 것 같은데 그사이 후배들도 많이 성장했고 팀에서 내 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야구에만 전념할

지난달 경찰청 제대, 팀 복귀
자비들여 나홀로 필리핀 훈련
유동훈 등과 주전 경쟁 선언

수 있게 돼 희망도 생기고 시즌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범현 감독의 잔류부탁에도 군입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용운은 “당시 새로 부임한 조범현 감독님이 투구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시면서 불관리를 해주시겠다고 잔류를 부탁하셨다. 하지만 당시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군복무를 연기하기 힘들었고 보직에 실패하면서 마음도 다치고 많이 지쳐

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화려했던 프로무대를 뒤로한 채 보낸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신용운은 한층 더 성장했다. 1군 무대를 떠나있으면서 야구에 대한 열정도 더욱 커졌다.

광주가 그리웠다는 신용운은 “윤석민 등 후배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몸관리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을 했다”며 “두 차례 수술도 했고 지나는 시간을 생각하면 많이 속상하지만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마운드에 서겠다”고 밝혔다.

간절히 바라던 우승의 순간, 마운드에 있지 못했던 것은 신용운에게 큰 아쉬움이다. 팀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앞섰다.

KIA의 ‘믿을맨’에서 새로 출발선에 선 예비역 신용운. 지난 여름 옷자란 팔꿈치 뼈를 깎는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해온 신용운은 필리핀 훈련에서 톱토스까지 마쳤다.

유동훈·손영민·전태현·차정민 등 언더투수들과의 치열한 주전싸움을 예고한 신용운이 2010년 팬들 곁에 다시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스토브리그 희비

이종범 웃고

연봉 30%↑ 2억6천만원 도장

KIA 프랜차이즈 스타의 스토브리그가 잇 갈리고 있다.

KIA는 11일 외야수 이종범과 2억원에서 30% 인상된 2억6천만원에 연봉계약을 마무리 했다. 2008년 연봉이 5억원에서 2억으로 60%가 삭감되며 자존심을 구졌던 이종범은 4년 만에 인상된 연봉을 받았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스타 장성호는 FA미 아 위기를 맞으며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연봉 백지위임과 은퇴논란 등으로 힘든 스토브리그를 보냈던 이종범은 2009시즌 0.273의 타율로 6홈런 40타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연봉 인상의 기쁨을 누렸다. 무엇보다 ‘말형’으로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모처럼 마음 편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종범은 “올 시즌에도 후배들을 잘 이끌어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하고 싶다”며



장성호 울고

협상 진척없어 팀과 결별 위기

받지 못하고 FA떠돌이 신세가 됐다.

12년을 기다렸던 우승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한 달 여 가량 ‘방치’상태에 놓여있던 장성호는 지난 7일 구단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장성호는 1년 계약에 연봉 2억5천만원과 옵션을 제시받았지만 트레이드 요청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빼들었다. 불투명한 입지와 자존심 때문에 정들었던 친정팀과의 작별까지 생각한 것이다.

장성호는 11일 구단과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경이 복잡한’ 장성호가 일정을 2~3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오면서 세 번째 만남이 연기됐다.

15일까지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장성호는 야구 규약에 따라 이번 시즌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투·포수조 광 전훈 돌입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본격적인 계도에 올랐다.

KIA의 광 전지훈련 투수 및 포수조가 11일 밤 전지훈련터인 광으로 출발했다.

이날 출국한 선수는 이대진 등 투수 16명과 차일목 등 포수 3명, 외야수 채종범 등 20명이다. 광 스프링캠프는 조범현 감독과 새로 부임한 스키모토 투수 코치 및 장재중 배

터리 코치가 이끈다. 투·포수조는 오는 27일까지 재활조와 함께 광 과세오 구장에서 기초체력훈련과 캐치볼, 웨이트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고 일시 귀국한다. 이후 29일 야수조가 있는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해 기술·전술훈련과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야구장 신축 매뉴얼 발행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장을 지으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야구장 신축이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일 야구장 건립 매뉴얼을 발행했다.

76페이지의 책자에는 국내 야구장 현황과 종류, 건립 방안과 사례, 인조잔디 종류와 조명 등이 실려 있다.

/연합뉴스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규모 3조 8,745억원

국민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분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구입한 스포츠용품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규모가 3조8천74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스포츠 종목별로 용품 구입 빈도는 일

종목별 용품 구입 빈도
레저 41% 등산 35%순

반 레저용이 40.7%로 가장 많았고 등산 34.9%, 조깅(마라톤 포함) 15.4% 순이었다.

의류와 신발 등을 포함해 종목별 용품 구입금액은 골프가 1인당 14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스키·스노보드가 86만원, 자

전거 61만원, 등산 57만원 차례였다.

용품 구입처는 오프라인 전문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순이었다.

체육공단은 국내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기초자료 도출을 위해 지난 해 11월 3주간에 걸쳐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에 경영 및 마케팅 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선두 질주 위해 하늘을 날다

모터크로스 선수들이 10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ADAC 슈퍼 크로스 2010’ 대회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